

『韓國時調大事典』補遺(Ⅳ)*

박을수**

〈目次〉

- I. 序言
- II. 作品註釋(계속)

1. 序言

여기 소개하는 내용은 필자의 『韓國時調大事典(上·下)』(亞細亞文化社, 1992) 출간 이후에 새로 발굴된 시조작품이다. 그후 지금까지 더 발굴된 時調遺産은 251首나 된다. 따라서 필자의 시조사전에 수록된 작품이 모두 5492首였으니까, 이를 합치면 시조의 총 유산은 5743首가 되어, 그 만큼 우리의 작품유산이 윤택해지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들 유산을 정리하여 시조사전의 《補遺篇》 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시조학회의 요청에 따라 이를 나누어 실는다.

* 朴乙洙, 『韓國時調大事典』補遺(Ⅰ)(Ⅱ)(Ⅲ): 『時調學論叢』第11·13·17輯(한국시조학회, 1995·1997·2001).

** 순천향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제 『韓國時調大事典』 이후에 발굴된 시조유산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이중에서 歌集 4·5·10·11·18·21·22·24·25는 시조사전에서 다른 것이나, 누락된 작품을 추가한 것임).

番號	時調集名	編著者名	編纂年代	編纂區分	新作品 收錄作品	備 考
1	釋譜詳節 第20卷 末尾	未 詳	세종28~세종31 (1446~1449)	구분 없음	4/4	초간본 『석보상절』 제 20권 말미에 작자·연대미상의 시조 4수가 古拙體로 씌여 있음. 임형택 소개.
2	先稿	朴 漑	중종6~선조19 (1511~1586)	구분 없음	2/2	『先稿抄』 『賦詩論策』에 시조 2수가 수록되어 있음. 金一根 소개.
3	追慕錄	金字宏 金得可	중종19~선조23 (1524~1590) 명종2~선조25 (1547~1592)	구분 없음	8/8 3/3	필사본으로 宋川書院(경북 봉화) 소장. 金字宏과 그의 아들 金得可의 시조가 수록되어 있음. 조해숙 소개.
4	眉巖日記	柳希春	선조7(1574)	구분 없음	1/3	『眉巖日記』(慕賢館所藏 筆寫本). 甲戌 11월 11일條. 宋宰鏞 소개.
5	懈菴集	金應鼎	중종22~광해12 (1527~1620)	구분 없음	1/8	田光鉉·秦東赫 소개.
6	剡溪公遺事	李 淨	(1532~?)	구분 없음	6/6	『慶州李氏家乘』(필사본)에 시조 6수가 전함. 임형택 소개·소장.
7	晩悟遺稿	房元震	선조10~효종1 (1577~1650)	구분 없음	3/3	秦東赫 소개·소장
8	過庭拾遺	李景嚴	선조12~효종3 (1579~1652)	구분 없음	15/15	필사본으로 卷之4에 시조 15수와 가사 1편이 수록되어 있음. 秦東赫 소개·소장.
9	豚軒公遺事	李弘有	선조21~현종12 (1588~1671)	구분 없음	5/6	『慶州李氏家乘』(필사본)에 시조 6수가 전하나 끝 수는 초장만 전함. 임형택 소개·소장.

10	雜奔園集	李重慶	효종7(1656)	구분 없음	1/21	〈梧臺漁父歌〉 20수 외에도 〈藏拙窩歌〉 1수가 더 수록되어 있음. 계명대도서관 소장. 張仁鎭 소개.
11	赴北日記	朴就文	광해군9~ 숙종16 (1617~1690)	구분 없음	1/2	朴繼叔의 『赴北日記』에 채택된 속에 '赴防日記' 2수가 수록되어 있음. 李樹鳳 발굴·소개.
12	玉鏡軒遺稿	張復謙	광해군9~ 숙종29 (1617~1703)	구분 없음	10/10	全4권 중 卷3 〈歌詞〉條에 '孤山別曲' 10수가 수록되어 있음. 全州大도서관 소장·全壹煥 소개.
13	景寒亭詩歌	郭始徵	인조22~숙종39 (1644~1713)	구분 없음	24/24	秦東赫 소개·소장.
14	後溪詩集	趙裕壽	현종4~영조17 (1663~1741)	구분 없음	3/3	후단 〈小詞〉條에 시조 3수가 수록되어 있음. 秦東赫 소개·소장.
15	漫錄	李森	숙종30~영조11 (1677~1735)	구분 없음	2/2	'反武歌(가사)와 '短歌(시조) 2수가 수록되어 있음. 秦東赫 소개·소장.
16	頤齋亂藁	黃胤錫	영조5~정조5 (1729~1781)	구분 없음	1/	『이재란고』 卷8, 706면에 작자 미상의 '淸冷浦歌'를 한역하면서 시조를 한글로 기록하고 있음.
17	甲束束漫詠	尹陽來	현종14~영조27 (1673~1751)	구분 없음	19/19	권말의 〈歌曲〉條에 시조 19수가 수록되어 있음. 서울대규장각 소장. 朴乙洙 소개.
18	勿欺齋集	姜膺煥	영조11~정조19 (1735~1795)	구분 없음	1/2	필사본 『勿欺齋集』에만 시조가 수록되어 있음. 金榮福 소장. 秦東赫 소개.
19	觀城雜錄	金履翼	영조19~순조30 (1743~1830)	구분 없음	10/10	필사본 漢籍인데 '잡저' 중에 〈歌曲〉이라 하여 시조 10수가 수록되어 있음.

20	東遊金錄 (壯遊錄)	友 松	영조40~(?) (1764~(?)	구분 없음	6/6	기행록의 원문과 상하 여백에 시조 6수가 기록되어 있음. 서울대규장각 소장·金南基 소개.
21	城西遺稿	申甲俊	영조47~현종11 (1771~1845)	구분 없음	1/10	秦東赫 소개·소장.
22	解我愁	未 詳	영조37~(?) (1761~(?))	구분 없음	4/470	秦東赫 소개·소장.
23	無名時調集 가본	未 詳	정조24~철종1 (1800~1850)	내 용	12/78	袖珍本으로 秦東赫 소개·소장.
24	三竹詞流 異本	趙 楓	현종13(1847)	구분 없음	8/92	『三竹詞流異本』과 『三竹詞流』 두 가집의 작품을 대조한 결과 8수는 새로운 자료임.
25	別風雅	李世輔	고종2(1865)	곡 조	1/139	『風雅(大)』에서 『絶代名妓瓊玉』에게 주기 위해 139수를 뽑아 엮은 시조집임. 秦東赫 소개·소장.
26	歌 詞 (羅孫文庫本)	未 詳	고종33(1896)	구분 없음	28/203	표지가 훼손된 것을 羅孫이 붙인 것임. 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羅孫文庫소장. 吳鍾珪 소개.
27	金聲玉振	未 詳	순종4~(?) (1910~1920?)	구분 없음	20/179	開化時調 1首(55번)가 수록되어 있음. 秦東赫 소개·소장.
28	時調集 (羅孫文庫本)	未 詳	조선조 말	구분 없음	12/52	수록작품은 53수이나 (14·18)이 중복됨. 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羅孫文庫소장. 洪允杓 소개.
29	芳草綠	未 詳	未 詳	구분 없음	21/137	袖珍本임. 수록작품은 142수이나 5수가 중복됨. 秦東赫 소개·소장.

30	靈山歌 (羅孫文庫本)	未詳	未詳	구분 없음	14/52	필사본으로 시조 52수가 수록되어 있음. 단국대 올곡기념도서관. 羅孫文庫 소장. 吳鍾珏 소개.
31	歌曲 (清濃本)	未詳	未詳	구분 없음	2/7	필사본으로 표제를 알 수 없으나 모두 70여 수가 수록된 것으로 추정됨. 秦東赫 소장·吳鍾珏 소개.

II. 作品註釋(계속)

5627

아마도 모를 일은 하늘의 조화로쇠

어제 덩더니 오늘은 막이 치위

하늘을 미리 알작시면 덩기 칩기 넘너하라.

作家 尹陽來

[字 季亨, 號 晦窩]

出典 甲棘漫詠·18

5627 **註釋** 아마도=아마도. →5682 註釋/ 모를 일은=모를 일은. 「모르다. →5649 註釋. 「일」→5619 註釋/ 하늘 의=하늘의. 「하늘ㅎ」→5723 註釋/ 조화로쇠=조화로구나. 「造化| 도쇠」의 구조임. 「~도쇠」→5594 註釋/어제=어제. →5615 註釋/ 덩더니=덩더니. 기본형은 「덩다」로 「덩+더+니」의 구조임. [訓蒙上 1] [類合上 2] 「더울서(署)」。 [月釋 九 23] 「더보면 노가」/ 오늘은=오늘은. →5658 註釋. 막이=매우. 몹씨. [譯補: 33] 「막이 취하다(爛醉)」。 [譯語 下 29] 「막이 뒛는 말(響走馬)」/

치위=출구나. 춤네. 기본형은 「칩다」임. [月釋 七 53] 「치봄과 더봄 과」。 [杜初八 45] 「몰앓나조희 脊鳥鶴이 칩도다」/ 미리=미리. [類合 下 27] 「미리에(豫)」。 [小諺 二 36] 「미리 齋戒하야」/ 알작시면=알았다면. 알 수만 있다면. 「알+르작시면」의 구조임 「알다」→5610 註釋. 「~르작시면」→5660 註釋/ 넘너하라=염려하겠느냐. 기본형은 「넘너하다」임. [新續 忠 一 63] 「길흉은 넘너할 배 아니라」。 [太平 一 12] 「승상의 넘너를 기티디 아니 호령이다」.

5628

我洋琴 빗기 안고 綠竹竿을 홀리노하
 碧海 千澗의 木蘭舟 띄워시니
 白鷗야 느지 마라 네 벗인 줄 모른다.
 *題 目: 泛舟東臺

作家 友松
 出典 東遊錄·6

5629

아히야 연슈 처르 임의 집의 편지하게
 거문 먹 힌 조이의난 임의 얼굴 보련마는
 엇지턱 저 부더는 니 얼굴만 길리난고.

出典 時調集
 (羅孫文庫本)·26

5628 [註釋] 빗기=비스듬이. 「빗기다」→5569 註釋/ 안고=알고서. 기본형은 「안다」임. [類合 下 46] 「아닐포(抱)」[三綱 孝 17] 「남굴 안고 우더라」/ 綠竹竿=대나무 낚싯대/ 홀리노하=흐르는 대로 맡겨두고/ 碧海 千澗=푸르고 깊은 물. 「千尋」은 八千尺. 「一尋」은 八尺. 매우 높고 깊음을 비유하는 표현임. [孫綽: 遊天臺山賦] 「建木減景於千尋」. [劉禹錫: 西塞山詩] 「千尋鐵銷沈江底 一片降旗出石頭」/ 木蘭舟=목란과 같은 귀한 나무로 만든 배 [述異記] 「木蘭州在潯陽江中 多木蘭樹 魯般刻爲舟」. [柳宗元: 詩] 「破額山前碧玉流 騷人遙駐木蘭舟」/ 띄워시니=띄웠으니. 기본형은 「띄오다. 띄우다」가 같이 쓰였음. [杜重 二 30] 「곧 仙槎를 띄우고저 호노라」. [杜重 三 20] 「비를 띄우고/ 느지=날지. 「놀다」→5605 註釋/ 마라=말거라. 「말다」→5720 註釋/ 네=너의. →5667 註釋/ 벗인 줄=벗인 줄을. 「벗」→5669 註釋/ 모른다=모르느냐. 「모르+는다」의 구조임. 「모르다」

→5649 註釋. 「~순다」→5613 註釋.

5629 [註釋] 연수=硯水. 벼룩물. 「硯滴」은 벼룩물을 담은 그릇. 水丞·水滴/ 처르=(벼루에) 물을 부어라. 기본형은 「치다」로 「물·기름따위를 치다」의 뜻. [家諺 四 18] 「從者 물치고 슈건 받조오며」. [譯語 下 16] 「기름치다(漆油)」/ 먹=먹. [訓蒙 上 24] 「먹 묵(墨)」. [木芻嚴 一 5] 「世界 옛 싸홀 마라 먹 밍 마라」/ 조이의난=종이는. 「조희·종희」동이 같이 쓰였음. [柳物 四 水] 「紙 조희」. [二倫 重 27] 「종희 부들 주쇼셔」/ 얼굴=얼굴. 모습. 形體. [訓蒙 上 24] [類合 下 1] 「얼굴형(形)」. [釋譜 九 17] 「얼구를 밍 마라 모든 呪術로 빌며」/ 부더는=부은. [五倫 二 59] 「부술 드러」/ 길리난고=그리는가. 기본형은 「그리다」. [訓蒙 中 2] 「그릴화(畫)」. [杜初 卅 53] 「형상을 그루든(畫形像)」. 「그리+논고」의 구조. 「~논고」은 의문형종결어미. →5669 註釋

5630 [註釋] 약갑다=아갑구나. 기본형은 「앗갑다」. [新續 三 忠 5] 「앗갑다

5630

악갑다 저 난초야 잡풀 속의 못쳐구나
무지한 목동더른 풀만 여겨 빌야한다
지금의 신통씨 업셔신니 그을 스러.

出典 歌詞
(羅孫文庫本)·84

5631

樂村의 精舍를 짓고 寒泉을 想像호며
朱夫子 道德을 千載下의 景慕호니
朝夕의 數三冠童으로 講學고져 호노라.

作家 郭始徵
[字 智叔 號 景寒亭]
出典 景寒亭詩歌·1

* 題 目 : 景寒亭感興歌 二十四章(24-1); 我有景寒菴

아니커니와, [小諺 五 61] 「진실로 可
히 앓가오니라(可惜)」/ 난초야=난초야.
[石千: 12] 「類合 上 7」 「난초난(蘭)」·
[小諺 五 28] 「령지와 난초에 나아감
곧티호여」/ 잡풀=雜草/ 못쳐구나=못
혔구나. 기본형은 「문다」로 「문+히+엇
+구나」의 구조. 「히」는 피동보조어간.
[月釋 九 25] 「나랏법에 자피어 미여」.
[三課 六 4] 「사람의게 잡히이다」. 「엇」
은 과기시제선어말어미. →5596 註釋.
「~구나」는 감탄형중결어미. [三綱 孝
9] 「무릎 거시 업서」. [分溫: 18] 「부도
로 만히 묻터」/ 여겨=여겨. 생각하여.
기본형은 「너지다」로 「너지어」의 구조.
「~어」는 부사형어미. [類合 下 13] 「에
엇비 너길년(憐)」. [月釋 序 23] 「어려
빔 너기거니와」/ 빌야한다=배려고 한
다. 기본형은 「버히다」로 「버히+려고
한다」의 구조임. 「~려」는 「~려·~려
고」의 뜻임. [龍歌 49] 「넙그미 나가려
호사」. [月千: 12] 「법을 펴려 호시니」.
[石千: 34] 「버힐뜰(誅)」. [杜初 十八
13] 「버휴블 마다(辭剪)」/ 신통씨=神

農氏. 중국 고대 제왕의 이름. 백성들에
게 農事와 製藥을 가르쳤다 함. [中國人
名辭典] 「上古帝 姜姓 始教民爲耒耜 興
農業 故稱神農氏 以火德王 亦以火紀官
故又稱炎帝 起於烈山 古亦曰烈山氏 亦
曰連山氏 亦曰伊耆氏 嘗百草面知寒溫之
性 君臣佐使之義 後世傳爲神農木草 又
作方書 以療民疾 復演八卦而爲六十四卦
名曰歸藏 都陳 後遷曲阜 立市廛以通貨
財 始作五絃之琴 以合神人之和在位一百
四十年而崩」/ 스러=숨어. 서러워. 기본
형은 「숨다」로 「厭·悲」의 뜻을 가짐.
[類合 下 9] [石千: 9] 「슬홀비(悲)」.
[杜初 廿一 13] 「막숨 슬턴 싸홀(傷心
處)」.

5631 **註釋** 樂村=곽시장이 학문을
하며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 朱夫子=
南宋의 大儒로 송나라의 理學을 대성시
킴. 자는 元晦 호는 晦菴. 그의 학문을
朱子學 또는 考亭學派라 이름. 그를 「朱
子·朱夫子」라고 부르기도 함. 「夫子」
는 덕행이 높아 모든 사람들의 스승이
될만한 사람의 명칭임. 孔子·孔夫子.

5632

압동산 봄춘자요 뒷동산 꽃화자라
구비구비 니천자요 흔들흔들 양유사라
아희야 술 부어라 마실음자라 貫珠인가.

[出典] 金聲玉振·104

5633

얹 뉘히 심근 솔로 草亭 흐 간 지어내니
淸明 時雨은 또 언디 오단말고
此中の 春興이 足하니 亦君恩인가 흐노라.

[作家] 李景嚴

[字 子陵, 號 玄磯]

[出典] 過庭拾遺·8

* 題 目 : 淸明亭

[中國人名辭典] 「宋 松子 字 元晦 一字 仲晦 松爲政和尉 熹因僑寓建州 登紹興 進士第 歷事高孝光寧四朝 凡所奏聞 皆 正心誠意 齊治平均之道 累官轉運副使 煥章閣待制 秘閣修撰 終寶文閣待制 慶元 中 致仕 旋卒 嘉泰初 諡文 寶慶中 贈太師 追封信國公 改徵國 熹源籍婺源 婺源於 梁陳時爲新安郡 故其署款多稱新安 居崇 安時 榜聽事曰 紫陽書堂 故稱紫陽 又別 草堂 於建陽之雲谷 榜曰晦菴 自稱雲谷 老人 亦曰晦翁 晚卜築於建陽之考亭 作 滄洲精舍 自號滄洲病叟 又號涿翁 考亭 爲講學之所 故人稱考亭學派 其學出於李 侗 羅從彥 盡得程氏之傳 大抵窮理以致 其知 反躬以踐其實 而居敬爲主 所著有 易本義 啓蒙 著卦 詩集傳 大學中庸 章句或問 論語孟子集注……」 [左傳: 文 元公元年] 「秦伯曰 孤實貧以禍夫子 夫 子何罪」. (國語: 楚語) 屈到者之 既卒 宗老將薦芟曰 夫子屬之. [論語: 憲問] 「信乎夫子不言不笑不取乎」. [陔餘叢考: 卷三十六] 「夫子本春秋時先生長者之稱 故孔門弟子稱孔子 皆曰 夫子 顏淵曰 夫

子循循善誘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 子貢 曰 夫子之文章 蓋皆沿當時之稱 非特創 也」. [書經: 泰書中篇] 「勛哉夫子 (注) 夫子謂將士」. [白虎通號] 「子 丈夫之通 稱」. [史記: 孔子世家贊] 「中國言六藝者 折中于夫子 可謂至聖矣」. [白虎通號] 「夫 子 扶也 以道扶掖者也 謂婦之夫也」/ 數 三冠童 = 여러명의 어린이. 「冠童」은 관 례를 한 사람과 아니한 아이를 아울러 이듬. [論語: 先進篇] 「冠者 五六人 童子 六七八人」/ 講學 = 학문을 강론함.

5632 [註釋] 양유사라 = 楊柳絲라. 수 양버들가지라. [詩經·小雅: 采薇] 「楊柳依依」. [康熙字典] 「按 楊柳一物二種 毛詩分 二言之者 齊風折柳樊圃 陳風東門之楊 是也 合而言之者 小雅楊柳依依 是也 本草云 楊枝硬而揚起 故謂之楊 柳 枝弱而垂流 故謂之柳 正字通 據古詩 南楊其有柳 分爲二非」. [樂府: 詩集] 「唐 書樂志曰 梁樂府有 胡吹歌云 上馬不捉 鞭 反拗楊柳枝 下馬吹橫笛 愁殺行客兒」. [宋書: 五行志] 「晉太康末京洛 爲折楊 柳之歌 其曲有兵革苦辛之辭」/ 부어라 =

5634

애돌을손 사람일다 일편단심 귀 뉘 알리
 위국일스논 알암죽도 흐건만은
 알고도 모르는 체흐니 그를 설워 흐노라.

[作家] 李 森

[號] 白日軒

[出典] 漫 錄

* 漢譯歌: 愴慨哉人兮 一片丹心復誰知 爲國
 一死 庶幾乎知 知而不知之知 是以悲之.

붓거라. 기본형은 「붓다」로 「붓+거라」의 구조. 「~거라」는 「~어라」와 함께 명령형종결어미임. [時調: 鄭 澈] 「더중아 게 잇거라. [譯語 上 59] 「술 붓다(西賁酒)». [同文 上 2] 「비 붓드시오다(傾盆雨)/ 貫珠인가=(마실음자에) 관주를 하다. 詩文을 끊아서,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곳에 치는 동그라미. [烈女春香守節歌] 「字字히 批點이요 句句이 貫珠로다」.

5633 [註釋] 앞=앞. 「앞. 앞. 앞」등이 같이 쓰였음. [釋譜 十一 21] 「앞 뒤헤 圍繞했더니. [訓蒙 下 34] 「앞 전(前)». [新續 孝 六 11] 「어미 아프로 향흐거늘/ 되히=산에. 「되ㅎ+익」의 구조. 「익」은 처소격조사임. [訓蒙 上 3] 「뫼 산(山)». [解例: 用字] 「뫼 爲山」/ 심근=심은. 기본형은 「심기다」임. [釋譜 十三 36] 「因緣을 심곤 전츠로. [樂章: 鄭石歌] 「구은 밤 닷되를 심고이다」/ 지어내니=지으니. 기본형은 「짓다」. [石千: 9] [類合 下 3] 「지을작(作)». [釋譜 十一 11] 「우리는 罪지슨 모미라」/ 清明 時雨=청명절에 때 맞춰 오는 비. 「清明」은 이십 사 절기의 하나로 春分과 穀雨의 사이. [淮南子: 天文訓] 「斗指子則冬至 距冬至四十六日而立春 加十五日指寅 則雨水 加十五日指甲 則雷驚蟄 加十五日指卯 中繩 故曰春分 加十五日指乙 則清明風至」 [熙朝樂事] 「清明

前兩日 謂之寒食」/ 亦君恩인가=또한 임금님의 은덕인가. [時調 166. 孟思誠] 「이 몸이 서늘히음도 亦君恩이샷다. 「君恩如水向東流. 「李商隱: 宮詞」 「君恩如水向東流 得寵憂移失寵愁 莫向樽前奏華落 寒風只在殿西頭」.

5634 [註釋] 애돌을손=애달구나. 애다운 것은. 기본형은 「애들다. 애들다. 애들다」 등 다양하게 쓰였으며, 「애돌+오+리+손」의 구조임. [類合 下 25]가 「애돌을감(感)». [釋譜 十一 29] 「그 아비 애드라 널오더. [時調 3318. 成宗] 「그러도 하 애도래라. 「~손」→ 5593 註釋/ 사람일다=사람이라 할 것인가. 사람이겠느냐 「사람+이+로다」의 구조로 「~로다」는 「~겠느냐. ~르것이로다」의 뜻을 지닌 종결어미임. [老乞 上 4] 「더 漢人 글 비화 므슴 홀다. [松江 一 8] 「比屋可封이 이제도 잇다 홀다」/ 일편단심=一片丹心. 마음속에서 우리 나오는 충성된 마음. [後漢書: 周燮等傳序] 「日買猪肝一片. [杜甫: 曲江詩] 「一片花飛減卻春」/ 기=그것을. → 5962 註釋/ 뉘=누가. → 5497 註釋/ 알리=알랴. 「알+리」의 구조. 「알다」→ 5610 註釋 「~리」는 「~라·~르것인가」의 뜻을 가진 의문형종결어미임. [龍歌: 87] 「聖人神力을 어는 다 슬봉리. [月釋 一 10] 「俱夷 묻즈녯사디 므스게 쓰시리」/ 위국일스=爲國一事. 나라를 위하는 한

5635

野渡 一片舟는 몇 사람 건네노라
 가는 듯 오는 듯 설 적 업시 든니다가
 빈 비에 明月을 신고 절로 汎汎호느니.
 * 題 目: 開巖十二曲: 虛舟

作家 金宇宏
 [字 敬夫, 號 開巖]
出典 追慕錄

5636

야속키 기르던 마음 응당 보면 흐릿편이
 怒念의 醉흔 다시 櫻脣을 잠겨셔라
 그러나 聽思總無情호니 그러시려.

出典 芳草錄 · 123

가지 일. 爲國丹忠/ 알암죽도=알만도.
 알아줄만도. 「알+아+ㅁ죽도」의 구조임
 / 모로논=모르는. 「모르다」→ 5495 註
 釋/체호니=척하니. 기본형은 「체하다·
 테하다」가 같이 쓰였음. [三譯 五 7] 「아
 지못호는 체호여」. [內重 三 56] 「거긔
 미친 테호고」/ 설위=서러워. 「쉽다」→
 5591 註釋.

5635 **註釋** 野渡 一片舟=벌판의 나
 루에 있는 조각배. 「野渡」. 「韋應物: 除
 州西澗詩」 「春潮帶雨晚來急 野渡 無人
 舟自橫」. 「李嘉祐: 送王牧詩」 「野渡花
 爭發 春塘水亂流」/ 건네노라=건네는가.
 기본형은 「건네다」. [類合 下 11] 「건넬
 제(濟)」. [六祖 上 33] 「너를 건네요미
 울호나라」/ 설 적=설 틈이. 설 때가.
 기본형은 「쉬다」로 「쉬+ㄹ」의 구조의
 잘못임. 「~ㄹ」은 관형사형어미. [類合
 下 21. 46] 「설 헐(歇)·설 게(憩)」. [譯
 語 上 6] 「길 쉬다(路瀾)」/ 든니다가=
 다니다가. 기본형은 「든니다」. [木罨巖
 一 86] 「디나 든녀(偏歷)」. [同文 上 26]
 「든니다(步行)」/ 빈 비에=빈 배에. 기

본형은 「뵈다」로 「뵈+ㄴ」 구조의 잘못
 임. 「~ㄴ」은 관형사형어미. [類合 下
 49] 「石干: 10」 「뵈 공(空)」. [金三 三
 9] 「다 뵈나라(皆空)」. 「뵈」. [訓蒙 中
 25] [類合 上 19] 「뵈 쥬(舟)」. [龍歌:
 20] 「마르매 뵈 업거늘(河無舟矣)」/ 신
 고=신고. 기본형은 「신다」. [石干: 28]
 [訓蒙 下 24] 「시롤지(載)」. [杜初 十五
 15] 「萬斛 실는 뵈」.

5636 **註釋** 야속키=야속하게도. 기
 본형은 「야속하다」. [翻小 十 23] 「야속
 호 말스몰(俚語)」. [內重 一 23] 「야속
 고 상된 말스몰(俚近之語)」. 「야속하다」
 를 「野宿하다」로 한자어 표기를 하기도
 하였음. [時調 1524] 「無情하고 野宿헌
 任아 哀魂 離別 後에」/ 기르던=그리던.
 그리워하던. 기본형은 「그리다」. [類合
 下 11] 「그릴런(戀)」. [樂章: 鄭瓜亭]
 「내 님물 그리스와 우니다니」/ 흐릿편
 이=하였더니. 하자 하였더니/ 怒念의
 =노여움에. 노여운 생각에/ 櫻脣을=
 앵두같은 입술을. 「櫻脣」은 「벗꽃의 아
 름다움을 입술에 비유한 말」임. [張憲

5637

약슈 삼철니의 순풍 만나 셔 거년 비년 게 누리 出典 歌詞

타신 비야

(羅孫文庫本) · 176

니 비년 동남동여 오백인 실코 영류 봉니 삼신

산 불사약 킨러 가년 서씨 타신 비라

셔씨년 진나라을 비반하고 예왕 되러.

太：眞明皇竝笛圓詩「風生爪玉笙香 露濕櫻脣金縷長」/ 잠겨서라=(입을)다물었구나. 「즈기+엇+예라」의 구조임. 「~예라」는 감탄형종결어미. 기본형은 「즈기다·즈르다」가 같이 쓰였음. [杜初七 33] 「뎃 서리에 즘겜는고(鎖筠)」. [釋譜 六 2] 「門을 다 즘고」/ 聽思總無情=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정이 일지 않음.

5637 註釋 약슈 삼철니의=弱水 三千里의. 끝없이 멀고 먼 곳에. 「弱水」는 仙境에 있다는 강으로, 부력이 약해 사람은 건너지 못한다함. 그래서 「건너지 못하는 강」의 뜻으로 쓰임. [書經：禹公] 「導弱水之于合黎」. [史記：大宛傳] 「條枝有弱水 而未嘗見」. [十州記] 「鳳麟洲 在西海之中央 洲四面 有弱水繞之 鴻毛不浮 不可越也」. [列仙傳] 「謝自然 泛海 求蓬萊 一道上謂曰 蓬萊 隔弱水 三萬里 非飛仙不可到」/ 비년=배는. 「비」→ 5635 註釋/ 동남동여=童男童女. 秦始皇이 불로초를 얻기 위해 三神山에 보냈다는 삼천명의 남녀 아이. [史記：封禪傳] 「三神山在渤海中 始皇至海上方士言之 不可勝數 使人乃齋童男童女入海求之」/ 실코=실고. 「신다」→5635 註釋/ 영류 봉니=瀛洲 蓬萊 方丈山과 함께 일컫는 三神山. [唐書] 「方是時 再選中

者 天下所慕向 謂之登瀛洲」. [楚辭：傷時] 「從安期兮蓬萊」. [山海經：海內北經] 「蓬萊山在海中(注) 上有仙人 宮室皆以金玉爲之 鳥獸盡白 望之如雲在勃海中也」. 삼신산 불사약=三神山 不死藥. [漢書：郊祀志] 「蓬萊 方丈 瀛洲 三神山 在渤海 金銀爲宮闕」. [史記：封禪書] 「自威宣燕昭 使人入海求蓬萊方丈瀛洲 此三神者 其傳在渤海中 去人不遠 且至則船風引而去 蓋嘗有至者 諸僊人及不死之藥 皆在焉」. [李白：詩] 「安得不死藥 高飛向蓬萊」/ 킨러=캐려고. 기본형은 「킨다」. [類合 下 46] 「킬 치(採)」. [月印 一 52] 「釋迦 菩薩이 藥키라 가 보 슌 시고」/ 서씨=徐氏 徐市(서불). 진나라 시황제의 方士. 동남동녀 삼천을 거느리고 不老長生藥을 구하려고 삼신산으로 갔다함. [史記] 「徐市 秦始皇時 方士 卽徐福 市馘字 漢時未有馘切 但以聲相近字音注其下 後人誤讀市作市塵字(同) 徐福 秦時方士 字君房 始皇聞東海中 祖洲有不死之草 乃遣福及童男女各三千人 乘樓船入海 尋祖州 不返西施

5638 註釋白玉堂 靑綾被=화려한 집과 비단옷을 입음 / 돌집=石屋 / 골자리의=갈대로 엮은 자리에. 샨자리(蘆筆). 「줄」. [解例：用字] 「들爲蘆」. [木罽巖 五 7] 「섯근 줄 곧하니(同於交

5638

어저 내 일이야 白玉堂 靑綾被를 마다하고
 돌집 굴자리의 옷슬 덮고 누엇고나
 그러도 一片丹忱이야 玉樓側의 썬날손가.
 *題 目: 自 嘲

作家 金履翼
 [字 輔叔, 號 玄磯]
 出典 觀城雜錄·4

5639

어제밤 꿈 좃튼니 임의 계셔 편지왔디
 썬여보고 다시보고 가심 우의 언저던니
 구턱여 무겁든 안컷마은 가심이 답답.

出典 靈山歌·21

蘆),/ 옷슬=옷을. 「옷을·오슬」의 混綴形. →5622 註釋/ 덮고=덮고서·기본형은 「덮다·덥포다·덥다」가 같이 쓰였음. [漢清 335d] 「덥다(蓋)». [新續忠 一 83] 「늘개로베 와 덥퍼서(覆)». [杜初 廿五 20] 「구름 두뻬난 므래」/ 누엇고나=누웠구나. 기본형은 「눕다」로 「누버>누버>누워」의 變化形. [訓蒙下 27] [類合 下 5] 「누을와(臥)». [杜初 七 17] 「病호야 누오라(臥病)」/ 一片丹忱=임을 생각하는 정성. 一片丹心. → 5634 註釋/ 玉樓側=옥으로 지는 누각의 곁을. 사랑하는 임의 곁을/썬날손가=떠나겠는가. 기본형은 「떠나다·떠나다」로 「떠나+리손가」의 구조. 「~리손가」는 의문형 종결어미. → 5736 註釋. [三譯 四 4] 「孔明의게 썬나려 훌제」. [觀音: 4] 「떠나디 아니 호리라」.

5639 註釋 꿈=꿈. [訓蒙 上 30] [類合 下 6] 「꿈 몽(夢)». [龍歌: 13] 「꾸므로 뵈아시니」/ 좃튼니=중더니. 기본형은 「똥다」임. [訓蒙 下 31] 「도홀호(好)». [龍歌: 2] 「꽃 도코 여름 하느니」

/ 편지가 왔디=편지가 왔네. [同文 上 42] 「편지(書信)». [太平 一 44] 「모든 고을 편지호야」/ 썬여보고=때어보고. 뜯어보고. 개본형은 「떠히다」임. [癸丑 p.139] 「글월을 떠혀보고」. [南明 上 72] 「브튼 덜 떠히며 미인 덜 그르며」/ 가심=가슴. 「가슴」. [金三 2 46] 「가슴스 가운데(胸中)». [樂章: 滿殿春別詞] 「藥든 가슴을 맛초옵스이다」/ 우희=위에. 「우희+의」의 구조 「의」는 처소격조사임. [龍歌: 87] 「뭇 우희 대버물 호 소노로 티시며」. [釋譜 六 2] 「노폰 樓 우희 오 르시고」/ 언저던니=엎었던니. 기본형은 「엎다」로 「엎+엎+더+니」의 구조임. [癸丑 p.208] 「가스를 담 우희 언고」. [救方 上 34] 「가슴과 비에 엎고」/ 구턱여=구태여. 굳이. 「구턱야·구턱여·구턱여·굳혀여·굳히여」등 다양하게 쓰였음. [新語 八 31] 「구턱여 말리는 故로」. [癸丑 p.80] 「굳혀여 갈노 디르며」/ 무겁든=무겁지는. 기본형은 「므겁다」임. [類合 下 48] [石千: 3] 「므거울똥(重)». [月釋 廿一 102] 「漸漸 므거버」.

5640

漁村에 落照하고 江川에 日暮로다
 小艇의 그물 실고 十里沙場 내려가니
 白鷗야 날 본 체 마라 沈魚 알가(세상 알가).

[出典] 芳草錄·86

5641

漁村에 落照하니 江川이 흐 비시라
 漁船은 도라들고 白鷗 暮烟 잠겨서라
 지금의 數聲漁笛이 瀟湘八景도 이렷던가.

[出典] 芳草錄·81

5642

엇기제 비즌 술이 다만 세 瓶 썬이로다
 흐 瓶은 물의 놀고 쓰 흐 瓶은 뉘희 노서
 이 낫지 나쁜 瓶 가지고 달의 논들 엇더리.

[作家] 張復謙

[字 益哉 號 玉鏡軒]

[出典] 玉鏡軒遺稿

* 題 目 : 孤山別曲(10-6)

5640 [註釋] 小艇=작은 고깃배. [張志和: 漁父詩] 「秋山入篇翠滴滴 野艇倚檻雲依依」. [劉長卿: 詩] 「婦人乘野艇 帶月過江村」/ 그물=그물줄. [訓蒙 中 17] 「그물망(網)」. [木芑巖 八 93] 「그 mre 거러(掛網)」/ 실고=신고. 「신다」→ 5635 註釋/ 十里沙場=십리나 펼쳐져 있는 모래톱. [張說: 巡邊河北詩] 「沙城磧路何爲爾 重氣輕生知許國」/ 본 체 마라=본 체하지 말거라. 「체하다」→ 5634 註釋. 「말다」→ 5720 註釋/ 沈魚=고기가 물속 깊이 숨어들. 「沈魚落雁」은 「미인을 형용하는 말임. [莊子: 齊物篇] 「毛嬙麗姬 人之所美也魚見之深入 鳥見之高飛」. [宋之問: 浣紗篇] 「鳥警人松蘿 魚畏沈荷花」.

5641 [註釋] 暮烟=해질무렵의 저녁 연기. [劉禹錫: 霜夜對月詩] 「海門雙青暮烟歇 萬頃金波湧明月」. [殷堯藩: 送沈亞之詩] 「暮烟葵葉屋 秋月竹枝歌」/ 잠겨서라=잠겼구나. 기본형은 「잠기다·잠졸다」로 「잠기+엇+예라」의 구조임. 「~예라」는 감탄형어미임. [三綱 忠 14] 「時急히예라」. [類合 下 4] [石千: 4] 「잠길잠(潛)」. [南明 上 60] 「몹방울 줌마로미」/ 數聲漁笛=어울들이 부는 피리소리. [杜牧: 登九峯樓詩] 「牛歌漁笛山月上 鷺渚鶯梁溪日斜」/ 瀟湘八景=소수와 상수가 만나는 곳의 아름다운경치. → 5624 註釋.

5642 [註釋] 엇기제=엇기제. 「엇기제·엇뜨제」가 같이 쓰였음. [時調 3493.

5643

淵明이 가난타 혼들 닷말 밭을 그릴손가

作家 李景巖

一朝 投綬하고 浩然歸來 하는 밭은

[字 子陵, 號 玄磯]

五柳春 北窓 淸風의 절로 늘그라 호노라.

出典 過庭拾遺·7

* 題 目 : 銀川賦歸

金昌業] 「자 나문 보라매를 엇그제 꺾
손 세허」/ 비즌=빛은. 「빛다」→ 5706
註釋/ 술이=술이. 「술」→ 註釋/ 다만
=다만. 단지. 「다만·다만당·다만지」
등 다양하게 쓰였음. [同文 下 48] 「다
만(但是)». [時調 2498 鄭澈] 「다만당
담 그린 타스로」/ 세 瓶=세 병. 「세ㅎ」.
[釋譜 十三 48] 「둘 아니며 세 아닐씨」.
[月釋 九 58] 「세흔 山行을 호거나」. 「병」.
[訓蒙 中 12] 「병 병(瓶)». [救簡 六
24] 「병의 녀코」/ 썬이로다=뽀이로구
나. 「썬」→ 5695 註釋/ 외희=산에서. 「외
ㅎ+의」의 구조임. [訓蒙 上 3] 「뫼 산
(山)». [杜初 八 18] 「외호로 느려 오며」.
「~의」는 처소격조사임. [圓諺 序 8] 「州
民 任灌의 지비 齋호니」. [朴初 上 1]
「더 일흥난 화원의 가」/ 밭괴=밭에. 외
에. 「밭」→ 5682 註釋/ 나문=남은. 「남
다」→ 5688 註釋/ 달의=달과 함께. 「돌」
→ 5706 註釋/ 논들=논다고한들. 「노+
니들」의 구조임. 「늘다」→ 5658 註釋
「~니들」은 「~한다고 할지라도 어찌」
의 뜻으로 쓰이는 어미임. [月千: 11]
「놈이 나아간들 百姓들히 놈을 조춘니」.
[樂章: 西京別曲] 「즈문 히를 외오골
녀신들」.

5643 **註釋** 淵明=東晉의 시인 陶潛.
「淵明」은 그의 자. 405년 彭澤의 令이
되었으나, 〈歸去來辭〉를 남겨두고 귀향
하여 五柳村에 살았음. 유명한 〈桃花源

記〉를 남겼음. [中國人名辭典] 「晉 倪
會孫 字淵明 或云 字元亮 一作名元亮
少有趣博學善屬文 嘗著五柳先生傳以
自況 親老家貧 起爲州祭酒 不堪吏職自
解歸 後爲彭澤令 在官八十餘日 郡遣督
郵至縣 吏白應束帶見之 潛曰吾不能爲五
斗米折腰 向鄉里小兒 卽日解印綬去職
賦歸去來辭 義熙末徵著作郎不就 元嘉初
卒 年六十三 世稱靖節先生 潛素養琴一
張 絃徽不具 每朋酒之會 則撫而和之 貴
賤造之者 有酒輒設 自謂義皇上人 以會
祖晉世宰輔 恥復屈身後代 所著文章 皆
題其年月 義熙以前 明書晉代年號 自永
初以來 惟云甲子而已 有陶淵明集」/ 닷
말 밭을=다섯 말 정도의 쌀을. 淵明이
「五斗米折腰」가 싫어서 관직에서 물러
난 일을 이룸/ 그릴손가=그리워하겠는
가. 연연하겠는가. 「그리다」→ 註釋/ 一
朝 投綬=하루 아침에 인끈(印綬)을 던
져 버리고/ 浩然歸來=미련없이 돌아감.
「浩然之氣」의 마음으로 돌아감. [孟子:
公孫丑上] 「我善養吾浩然之氣」/ 밭은=
뜻은/ 「뜻·뜻·밭」 등이 같이 쓰였음.
[漢清 157a] 「뜻(意)». [杜重 八 50] 「男
兒의 뜻과」. [釋譜 六 2] 「世間애 쁘들
그치고」/ 五柳春 =五柳村의 봄/ 北窓
淸風=서재에 누웠으니 맑은 바람이 서
서히 불어옴.

參考 乙丑春.

5644 **註釋** 蓮花=연꽃. 蓮華. [南

5644

蓮花이오 또 蓮花을 다시곰 짓거 주어
 周濂溪 愛蓮說을 맛드려 닐러 보니
 千古에 ㄹ 업슨 쓰들 알 리 저거 호노라.
 *題 目: 愛蓮曲 三(3-2)

[作家] 房元震

[字 而省, 號 晚悟]

[出典] 晚悟遺稿·2

5645

濂溪에 비를 띄여 伊川으로 도라드러
 仁義禮智 憲迷흔 길을 무르리라
 明道先生 가드 ㄹ 날 저물거든 晦菴 잘가.

[出典] 無名時調集

가본·65

史: 齊東昏候紀「鑿金爲蓮花 以帖地 令潘妃行其上 曰此步步生爲蓮花也」/ 다시곰=다시금. [同文 下 50] 「다시곰(再三)」. [法華 七 182] 「普賢이 다시곰 니라시며」/ 짓거 주어=꺾어 쥐고. 기본형은 「꺾다」임. [訓蒙 下 46] 「것글절(折)」. [龍歌: 36] 「두 갈히 것그니(兩刀皆缺)」/ 周濂溪 愛蓮說=주돈이의 연꽃을 예찬한 작품. 北宋 때의 학자로 宋學의 시조라 불림. 자는 茂叔 「濂溪」는 호임. [中國人名辭典] 「宋 營道人 字茂叔 初爲分寧主簿 調南安軍司理參軍 移桂陽令 治績甚著 又徙知南昌 富家大姓黠吏惡少惴惴焉 不獨以得罪爲憂 而又以汙穢善政爲恥 熙寧初知郴州 用趙抃 呂公著薦 爲轉運判官 以洗冤澤物爲己任 以疾求知南康軍 因家廬山蓮花峰下 胸懷灑落 如光風霽月 著太極圖說及通書 爲宋理學之開祖 二程皆其弟子 卒諡元公 所居曰濂溪 世稱濂溪先生」/ 맛드려=맛을 들여. [訓蒙 下 13] 「맛 미(味)」. [釋譜 六 28] 「맛 아롭과 모매 다후과」/ ㄹ 업슨= 끝 없는. 「ㄹ」의 변화형. [譯語 上 7] 「畧(河沿)」. [同文 上 1]

「하늘 ㅅ(天涯)」/쓰들=뜯음. 「뜻」→ 5677 註釋/ 저거=적어. 기본형은 「적다」로 「적+어」의 구조. 「어」는 부사형 어미임. [類合 下 60] 「저글쇼(少)」. [木芻嚴 八 110] 「큼과 저곰팻 아래는」.

5645 [註釋] 濂溪=宋學의 시조 周敦頤 → 5644 註釋/ 伊川=宋의 대학자 程頤. 자는 正叔으로 程顥의 아우인데. 伊川伯을 봉했기에 「伊川선생」이라 부름. 그는 처음으로 유교도덕에 철학적 기초를 부여하였음. [會箋] 「伊川 今河南汝州伊陽縣也」. [宋史: 道學, 程頤傳] 「世稱爲伊川先生」. [中國人名辭典] 「宋 顥弟 字正叔 與顥同受學於周敦頤 年十八 游太學著顏子好學論 胡瑗大驚異之 卽延見 處以學職 哲宗初擢崇政殿說書 每進講 色甚莊 繼以諷諫 出句 管西京國子監 頤學本於誠 以大學語孟中庸爲標指 而達於六經 動止語默 一以聖人爲師 世稱伊川先生 卒諡正公 有易春秋傳 語錄文集」/ 仁義禮智=인간이 갖춰야 할 四德. [孟子: 公孫丑 上]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 [朱熹: 小學

5646

오늘 전역의 임니 오시마 흐기로 전역인지만지 出典 歌詞
(羅孫本文庫) · 178

일즉암치 지여 먹고

헛튼 머리 거더 언고 천방지축 나가보니 임은

정영 간 곳 업고 거연 칠월 열 사흔날 벽겨신

삼썩 바연니 날 소긴다

지금의 밤 안이고 낮 갓틀 양이면 남 우세할 번.

5647

五斗米 위호여 紅塵의 느지 므르 作家 李 淨
 벼람 비 어쥬러워 칼 토비 므셔워라 [字 太瀨 號 楓溪]
 느종에 슬고 뉘웃치드 崎嶇호드 岐路多端 호여르. 出典 剡溪遺事
 * 題 目 : 楓溪六歌(第六節)

題辭] 「元亨利貞 天道之常 仁義禮智 人性之綱 凡此厥初 無有不善 藹然四端 隨越而見」/ 무르리라=물어보리라. 기본형은 「묻다」로 「묻+으+리라」의 구조임. 「~리라」는 의도형어미임. [龍歌: 19] 「외 한 도즈글 모르샤 보리라 기드리시니」. [石千: 5] 「무롤문(問)」. [太平 一 38] 「성을 무르니」/ 明道先生=宋나라의 유학자 程顥. 자는 伯淳이고 「明道」는 호임. 아우 程頤와 함께 二程子라 불림. → 5645 註釋/ 저물거든=날이 저물면. 기본형은 「저물다」. [類合 上 3] 「저물모(暮)」. [法華 二 7] 「나리 저물오 바미 못드록(終日竟夜)」/ 晦菴=朱熹. 「晦菴」은 그의 호임. → 5631 註釋.

5646 註釋 전역의=저녁에. 「전역·저녁」이 같이 쓰였음. [女四三 8] 「아침과 전역을 아지못호고」. [同文 上 5] 「저

녁(晚上)」/ 일즉암치=일찌감치. 조금 더 일찍이. 「일즈기·일즈기·일쯔이」 등이 같이 쓰였음. [老乞 上 24] 「우리 來日 일즈기 므음 노하 가자」. [中諺: 47] 「일 쯤기 響을 天下에 들 者」/ 헛튼=헛클어진. 기본형은 「허틀다·헛글다·헛틀다」 등이 같이 쓰였음. [時調 2289] 「世事는 삼썩올이라 허틀고 미쳐세라」. [時調 4593, 金光昱]. 「헛글고 싯근 文書」/ 언고=엮고. 「엮다」→ 5639 註釋/ 천방지축=天方地軸. 너무 급해 허둥지둥 분주히 날뛴. 天方地方/ 정영=정녕. 틀림없이. 丁寧. 「정녕호다」가 쓰였음. [癸丑 p.96] 「여러번 정녕호 말이시니」/ 거연=去年. 지난 해/벽겨신=(껍질을) 벗긴. 기본형은 「벗기다·벽기다」가 같이 쓰였음. [杜初 十八 17] 「거르를 벗규미」. [時調 4554] 「秋七月 갈가 벽긴 새신 삼디가」/ 삼썩=삼대. 大麻

5648

鰲臺邊 玉柱峯을 어느 년에 짓가셧고

亭亭 轟轟히여 壁立萬仞 히엿소나

만일에 天柱 옷 것거디면 네 바칠가 히노라.

* 題 目 : 開巖十二曲 ; 玉柱峯

【作家】 金宇宏

【字 敬夫, 號 開巖】

【出典】 追慕錄

의 대. [訓蒙 上 9] [類合 上 26] 「삼
마(麻)」. [柳物 三 草] 「大麻 삼」/ 바연
니=번연히. 뻗히. 巍然히. 확실히. [杜
初 十五 28] 「괴히 초고 비 번히 여디
아니히느다」. [癸丑 p.40] 「번히 뵈디
못게히」/ 소긴다=속인다. 기본형은 「소
기다」임. [類合 下 5] 「소길홀(謔)」. [法
華 六 175] 「늡 소교물 爲히야 안해 다
른 씨 먹고」/ 갓틀=갈을. 「갈히다」→
5624 註釋/ 우세할 번=웃게할 번. 웃음
거리가 될 번. 기본형은 「우이다」임. [漢
清 182b] 「늡 우이느 사름(頑笑人)」. [時
調 1059] 「밤일식 만정 히히 낮이런들
늡 우일 번 히패라」.

5647 【註釋】 五斗米 위히여=아주 작
은 祿俸을 위하여. 晉의 陶潛이 彭澤의
승이 된지 80여일 만에 五斗米 때문에
허리를 굽히는 것(折腰)이 싫어. 그만
두고 五柳村으로 돌아왔다는 고사. [宋
書:陶潛傳] 「潛歎曰 我不爲五斗米折腰
向鄉里小人 卽日解印綬去職 賦歸去來辭」
/ 紅塵=속세의 떠돌. → 5669 註釋/ 늑
지=나가자 出仕하지. 「나소다」→ 5589
註釋/ 마르=말거라. 「말다」→ 5720 註
釋/ 브람 비=세상의 風雨가. [龍歌: 2]
「브람에 아니 필씩」. [金三 四 18] 「朔
風은 北녁 브람이라」. [杜初 七 32] 「비
물 흘고(散雨)」. [釋譜 六 43] 「비 오게
히야」/ 어쥬러워=어지러워서. 기본형
은 「어즈럽다」로 「어즈러워」어즈러버

어즈러워」의 변화형임. [三綱 孝 24] 「時
節이 어즈러버 어미를 일코」. [木罌嚴
六 47] 「靑黃赤白이 셋거 어즈러우며」/
갈 토비=갈라 툭이. 「갈ㅎ」. [石千: 3]
「갈 검(劍)」. [太平 一 11] 「도흔 칼을
달라히야」. 「툭」. [訓蒙 中 16] [類合
上 28] 「툭 거(鉦)」. [解例: 用字] 「툭
爲鉦」/ 므셔워르=무셔워라. 기본형은
「므्ष다·무셔워히다」가 같이 쓰였음.
[十九 一 10] 「므셔워 드라나다」. [癸丑
p.125] 「드러가디 못히야 무셔워히다 히
다」/ 늑종에=나중에. 후에. 「나종·나
종내·내종·내종내」 등 다양하게 쓰였
음. [法華 三 16] 「처्ष 업스시며 내종
업스샤」. [內三: 29] 「내종내 어드러서
오노 히야」/ 슬코=싫어하고. 「싫다」→
5667 註釋/ 뉘웃치드=뉘우친다고 해
서. 기본형은 「뉘웃다·뉘웃츠다·뉘우
치다·뉘웃브다」 등 다양하게 쓰였음.
[三綱 孝 1] 「도르혀 뉘웃쳐」. [倭語 上
22] 「뉘웃츄회(悔)」. [杜初 八 20] 「뉘
웃브며 붓그려우미 니르와다」/ 崎嶇히
드=평탄하지 못하고 가탈이 많다고. [潘
岳: 西征賦] 「軌崎嶇以低仰」. [史記: 燕
世家] 「崎嶇強國之間」/ 岐路多端=갈림
길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음.

5648 【註釋】 鰲臺=누대의 이름. 未
詳/ 玉柱峯=산봉우리의 이름. 未詳/
어니 년에=어느 해에. 「어느제」의 뜻.
[杜初 八 20] 「어느제 太夫人 堂우회

5649

烏床上 黃卷中の 夫子를 외와시니

顔曾은 後先하고 程朱는 左右로다

이中の 즐기는 ㅁ음이 늑는 줄을 몰래라.

作家 郭始徵

[字 智叔 號 景寒亭]

出典 景寒亭詩歌·10

* 題 目 : 景寒亭感興歌 二十四章(24-10); 觀書慕聖賢

아슴돌홀 뵈홀다. [南明 上 13] 「부더
求하야 功 드리면 어느제 일우리오」/
썩가센고=깎아세웠는가. 기본형은 「썩
타+세다」의 복합구조임. [倭語 下 17]
「썩글작(斫)」. [譯語 上 30] 「마리 썩는
이」. [月釋 卅一 213] 「宝塔 세야」. [月
釋 十七 37] 「塔寺 세며 僧坊 지셔」/
亭亭轟轟=(산봉우리가) 우뚝 우뚝 뼈
죽 뼈죽 솟은 모양. [太公兵法] 「高山磐
石其亭亭」. [周敦頤: 愛蓮說] 「亭亭淨
植」. [水經: 瓠子河注] 「雷澤西南有小山
亭亭傑時 謂之歷山」. 「轟轟」은 높이 속
은 모양. [司馬相如] 「崇山轟轟 巖樞崔
巍」 ㅎ엇소나=하엿구나. 기본형은 「ㅎ
다」로 「ㅎ+이+엇+고나」의 구조임. 「~
고나」는 「~구나」와 같은 감탄형중결어
미. [朴初 上 73] 「도한 거슬 모르는 듯
ㅎ고나」. / 天柱=하늘을 떠받치는 기
둥이. 「웃」은 강세조사 「곳」의 「」 모
음 아래 「ㄱ」 탈락형태임. [金剛 後序
15] 「文字웃 아니면」. [三綱 忠 2] 「아
비웃 아니면 나디 묻ㅎ리며」 / 깃거디
면=꺾어지면. 「꺾다」→ 5644 註釋/ 만
칠가=(玉柱峯) 네가 떠받칠까. 「바되
다·받티다·받치다」 등이 같이 쓰였
음. [訓蒙 下 17] 「바밀듀(柱)」. [漢清
291b] 「괴와 받치다(擊著)」.

5649 **註釋** 烏床=웃 나무로 만든
案床/ 黃卷=책들 속에. 「黃卷」은 책의
만 이름. 책에 종이 쓰는 것을 막기 위

해. 황벽나무 잎으로 물들인 누른 종이
로 책가위를 한 데서 온 말임. [宋景文
公筆記] 「古人寫書盡用黃紙 故謂之黃卷
今人備白紙 道佛二家 寫書猶用黃紙 或
曰 古人何須用黃紙 曰藥染之 可用辟蠅
今臺家詔勅用黃 故私家避不敢用 / 夫子
=孔夫子. 孔子. 「夫子」→ 5649 註釋/
외와시니=외우니. 기본형은 「외오다」
임. [訓蒙 下 32] [類合 下 8] 「외울송
(誦)」. [月印 序 23] 「誦은 외울씨라」/
顔曾=공자의 제자 顔回와 曾子. 「안회」
는 자를 子淵이라 했는데. 학덕이 높아
스승의 총애를 받았음. 「증자」는 공자
의 제자 曾參으로 자를 子輿라 했는데.
「曾子」는 그를 높이어 일컫는 것임. [中
國人名辭典: 顔回] 「春秋 魯 無繇子 字
子淵 孔子弟子 天資明睿 貧而好學 列孔
門德行科 於弟子中最賢 孔子稱其不遷怒
不貳過 年二十九 髮盡白 三十二卒 孔子
哭之慟 後世稱爲復聖」. [中國人名辭典]
「春秋 魯 點字 字子與 孔子弟子 事親至
孝 嘗耘瓜 誤斷其根 點怒 援杖擊之 幾死
有頃復蘇 鼓琴而歌 孔子聞之 告門人曰
參來勿內也 小杖則受 大杖則走 今參陷
父不義 安得爲孝乎 參聞之 遂造孔子謝
過焉 參性質魯 日三省其身 悟一貫之旨
述大學 作孝經 以其學傳子思 子思以傳
孟子 後世稱爲宗聖」/ 程朱=송나라의
학자 程顥·程頤 형제와 朱熹 → 5631
註釋/ 즐기느=즐기는. 즐거워하는. 기

5650

玉鏡軒 줌을 씌여 嫩柳莊 안니다가
背溪石 훗드디여 不孤亭을 나가니
아희이 一壺酒 가지고 나올 츠자 오느라.
*題 目: 孤山別曲(10-5)

〔作家〕 張復謙
〔字 益哉 號 玉鏡軒〕
〔出典〕 玉鏡軒遺稿

5651

옥으로 함을 식겨 임도 들고 나도 드러
금거북 잠을쇠을 어식비식 치여두고
청천니 너 듯 바더 열지 말지.

〔出典〕 歌詞
(羅孫文庫本)·88

본형은 「즐기다」임. 類合 下 3] 「즐길락(樂)». [龍歌: 107] 「滿國히 즐기거늘/ 마음이=마음이. 「마슴」>「마슴」마음」의 변화형. [杜初 八 9] 「시름 마슴 업스샤디». [類合 下 1] 「마슴심(心)/ 늙는 줄을=늙는 것을. 기본형은 「늙다». [訓蒙 上 33] [類合 上 17] 「늘글로(老)». [南明 上 43] 「늙고 크거시니/ 몰래라=모르는도다. 기본형은 「모르다」로 「모르+애라」의 구조임. 「~애라」는 감탄형 종결어미. → 註釋 [龍歌: 19] 「구든城을 모르샤. [釋譜 六 8] 「해는다 모른다」.

5650 〔註釋〕 玉鏡軒=孤山에 있던 정각. → 5617 註釋/ 줌을=잠을. → 5705 註釋/ 씌여=깨어. 「씨다」→ 5623 註釋/ 嫩柳莊 「버드나무 가지가 늘어진 집」이란 뜻의 堂號 / 안니다가=앉았다가. 「앉다」 → 5656 註釋/ 背溪后=시냇물을 건너기 위해 깔아놓은 돌. 돌정검다리/ 훗드디여=홀어 디디며. 기본형은 「드디다」로 「홀+드되+어」의 구조임. 「홀」은 일종의 접두사임. 훗놀다. 훗미다.

[金三 四 27] 「발 드되을 고디 업스니. [月千: 19] 「世尊이 드되샤 四方 向하야/ 不孤亭=孤山에 있는 정자. → 5593 註釋/ 아희야=아희야. → 5685 註釋/ 一壺酒=한 병의 술. 「壺」는 항아리. [李白: 月下獨酌] 「花下一壺酒 獨酌無相親. [同: 襄陽歌] 「車傍側掛一壺酒 鳳笙龍管行相催」/ 가지고=가지고. 기본형은 「가지다」임. [月釋 一 28] 「여섯업 가지고. [杜初 卅 19] 「奕碁를 가져서」 / 츠자=찾아. 「츠타」→ 5696 註釋/ 오느라=오너라. 「오+느라」의 구조임. 「오다」 → 5682 註釋. 「~너라」 → 5685 註釋.

5651 〔註釋〕 옥으로=옥으로. [訓蒙 中 31] [類合 上 25] 「옥 옥(玉)». [鰾小 十 15] 「옥바치(玉工)/ 함을=함울. [訓蒙 中 19] [類合 上 28] 「함 함(函)/ 식겨=새겨서. 기본형은 「사기다·삭이다」가 같이 쓰였는데, 「사기+어」의 구조임. [訓蒙 上 2] [石千: 33] 「사길각(刻)». [同問 下 18] 「삭이다(刻了)」/ 잠을쇠을=자물쇠를. 「즈물쇠·즈뭇쇠」

5652

온 턴하 헤어보니 너르다 못 니롤쇠
 험흔 뵈 바다 덜고 사름 살 디 아조 적의
 이 압희 기벽흔 후의나 편흔 짜 불가 흐노라.

作家 尹陽來
 [字 季亨, 號 晦窩]
出典 甲棘漫詠·16

5653

窩는 내 집이오拙은 내 병이라
 내 집의 누어서 내 병으로 늘거시니
 世上의 無病흔 君子을 불을 줄 리 업세라.

作家 李重慶
 [字 慶叔, 號 壽軒]
出典 雜卉園集

* 題 目 : 藏拙窩歌

가 같이 쓰였음. [訓蒙 中 16] 「조물쇠 쇠(鎖)」, [法華 四 131] 「關은 조물쇠라, / 어식비식=어숙비숙. 어숙비숙. 가로 세로로 엮어매다의 뜻/ 치여두고=잠가 두고. 기본형은 「치이다」임. [三綱 忠 8] 「印綬를 치이거든」 [內初 - 84] 「몹어 미 問안해 미쳐 느뭇 치이고」/ 청천니 =靑天이. 하늘이/ 듯=뜯음. 「뜯」 → 5643 註釋/ 열지 말지=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기본형은 「열다」. [訓蒙 下 1] 「열 지(開)」. [月譯 十 25] 門을 열라 하였더니.

5652 **註釋** 온 턴하=모든 세상을. [法華 二 62] 「몸과 손과눈 온 體니」. [救方 下 61] 「은 편이(完片)」/ 헤어보니=헤어려보니. 헤아리니. 기본형은 「헤어하니」임. [松江 - 3] 「萬二千峯을 歷歷히 헤여하니」. [松江 - 15] 「누어 생각흐고 니러 안자 헤여하니」/너르다=넓다고. 기본형은 「너르다」임. [石千: 27] 「너를광(廣)」. [家諺 - 43] 「幅을 조차 너르게 흐고」/ 니롤쇠=이르짚구나. 「니르+르쇠」의 구조임. 「니르다」

→5661 註釋. 「~르쇠」 → 5594 註釋/ 험흔 뵈=험준한 산과. 기본형은 「험하다」임. [同文 上 7] 「험하다」(險). [小諺 五 15] 「험하고 조금흐면」. 「뵈흐」 →5642 註釋/ 바다=바다. 「바다흐」, 「바물」 등이 같이 쓰였음. [訓蒙 上 4] [類合 上 6] [石千: 3] 「바다헉(海)」, [龍歌: 2] 「바르래 가느니(于海必達)」/ 덜고=빼고. 기본형은 「덜다」임. [法華 - 82] 「어즈러우물 덜오」. [木峒嚴 九 38] 「웃을 덜오져 흐야도」/ 사름=사람이. [類合 上 16] 「사름인(人)」. [月千: 38] 「나랏 사름을 다 뵈호시니」/ 살 디=살 곳이. 「살다」 →5742 註釋. 「디」 →5602 註釋/ 아조=아주. [類合 下 61] 「아조 슈(殊)」. [痘要 上 9] 「아조 돌디 아니 흐느니라(全)」/ 적의=적오이. 적네. 「적다」 →5644 註釋/ 압희=앞이. 「앞흐+의」의 구조. 「앞」. [訓蒙 下 34] 「앞 전(前)」. [龍歌: 16] 「도즈지 알폴 디나샤」. 「~의」 →5642 註釋/ 편흔 짜=편안한 땅을. 기본형은 「편하다」. [石千: 24] 「편홀령(寧)」. [新語 六 14] 「밧음

5654

堯舜이 심그신 나무 夏禹 殷湯 물을 주어

[出典] 金聲玉振·63

文武周公 솟치 되고 孔孟 顏曾 입히 피어

그 가지 結實하니 程朱인가.

편홀까 祝願하닐이다. 「자ㅎ」→ 5550
 註釋

5653 [註釋] 窩=토굴. 움. 「움ㅎ」. [龍歌: 111] 「一間 茅屋업사 움 무더 사라 시니」. [四解 下 74] 「地室 움」/ 집이오 =집이고. 「집이고」의 「ㅣ」모음 아래서의 「ㄱ」 탈락형/ 拙=愚拙함. 「窩拙」은 「愚劣」의 뜻임. [漢書: 谷永傳] 「永等愚劣」/ 누어서=누워서. 「눅다」→5638 註釋/ 늘거시니=눅었으니. 「눅+엣+으니」의 구조. 「눅다」→5649 註釋/ 君子울=군자들을. 「君子」는 「학식과 덕행이 높은 사람」의 뜻임. [論語: 學而篇] 「人不知 而不愠 不亦君子乎」. [論語: 顏淵篇] 「君子之德風 小人德草 草上之必偃」. [儀禮: 士相見禮] 「凡待坐于君子」. [後漢書: 烈女傳] 「(注)君子謂夫也」/ 불울=부러울. 기본형은 「브러ㅎ다·부러ㅎ다」가 쓰였음. [繡小 八 23] 「브러ㅎ며 할아미(歎肯美詆毀)」. [漢清 180 a] 「ㄹ장 부러ㅎ다」/ 업세라=없도다. 기본형은 「없다」로 「없+에라」의 구조임. 「~에라」는 감탄형종결어미. →5654 註釋 [類合 下 9] 「업슬망(罔)」. [月千: 124] 「三毒이 업사 快事이 ㄹ 업스니」.

5654 [註釋] 堯舜=중국 고대의 唐堯와 虞舜. [沈約: 夏日紵歌] 「佩服瑤草 駐容色 舜日堯年歡無極」. [同: 神仙] 「億舜日 萬堯年」/ 심그신=심으신. 「쉬+으+시+ㄴ」의 구조. 「시」는 존칭선어말어미. →5601 註釋. 「심ㄱ다」→5633 註釋

/ 나무=나무. 단독형은 「납·나모」가 쓰였음. [龍歌: 2] 「불휘 기픈 늑근 브락매 아니뵘씩」. [漢清 404 a] 「ㄹ론 나모(枯樹)」/ 禹湯=夏의 우임금과 殷의 탕임금. 禹는 九年之水를, 湯은 七年大旱을 잘 이겨냈다 함. [辭源: 夏禹] 「夏開國之君 父鯀 堯時治水無功誅死 禹鯀之業 疏九河淪濟溼汝漢洮淮洞 八年於外 三過其門而不入洪水因以悉平 九州致貢 初封夏伯 故曰伯禹 受禪舜爲天子 因所封國爲有天下之號姓似氏」. [辭源: 成湯] 「商開國之君 契之後 名履 始居於亳 夏桀無道 湯伐之 放於南巢 遂有天下 國號商 在位三十年」/ 文武周公=주나라의 文王과 武王, 그리고 周公. [辭源: 周文公] 「周武王父 名昌 本爲殷之諸侯 其後武王有天下 乃追尊爲文王 當紂之時 國於岐山之下 施行仁政 天下諸侯多歸之 爲崇侯虎所讒 紂囚之於羑里 散宜生以美女珍寶奉紂 紂釋之 使專征伐 爲西方諸侯之長 曰西伯 遷都於豐 遂有天下三分之二」. [同: 周武王] 「文王子 名發 時商紂暴虐 武王率諸侯東征 戰於牧野 敗紂師滅殷 卽帝位 都鎬」. [辭源] 「周文王子 名旦 相武王伐紂 武王崩 成王幼 周公攝政 誅武庚 殺管叔 放蔡叔 定制度禮樂 制冠婚喪祭之儀 天下大治 堯後諡曰元 一云諡文」/ 솟치=꽃이. 「꽃」→5626 註釋/ 孔孟顏曾=공자와 맹자, 그리고 공자의 제자인 顏淵과 曾參. [辭源] 「儒家之祖 周春秋時魯人 名丘 字仲尼 初仕

5655

龍湖堂 흐르난 물은 蓼川水로 도라들고
三山半落蛟龍山이요 二水中分蓬萊島라
아마도 湖南 第一景은 廣寒樓인가.

出典 金聲玉振·123

5656

우리 님 심각하고 밤중도록 안잤다가
들 쓰자 님을 만나 반갑기도 그지업니
어디서 無心흔 鳴鷄는 이 내 꿈을 씨오거나.

作家 金履翼

[字 輔叔 號 玄磯]

出典 觀城雜錄·2

* 題 目 : 戀 君(3-2)

於魯爲司寇 攝行相事 其後不用 遂周遊四方 歸魯 刪詩書 定禮樂 贊周易 修春秋 以傳先王之舊 弟子三千人 身通六藝者 七十二人 生於周靈王二十一年 冬十月庚子 卒於敬王四十一年 夏四月乙丑年七十三. [辭源] 「戰國 鄒人 名軻 受學於子思之弟子 著孟子七篇 其說尊王賤霸 重仁義輕功利 創性善說 謂人皆可以爲堯舜 後世稱爲亞聖 言亞於孔子也」/ 「顏淵」→5649 註釋. 「曾參」→5649 註釋/ 입히=있어. 「넙교」. [太平 - 14] 「프른 넙피 그늘이 일고」. [分溫: 9] 「동향흔 넙플 키야」/ 程朱인가=宋의 대학자인 程顥·程頤와 朱喜인가. →5645·5631 註釋.

5655 **註釋** 龍湖堂=未洋/ 蓼川水=未洋/ 三山落蛟龍山 二水中分蓬萊島=三山の 해는 반쯤 교룡산에 지고 二水는 봉내섬을 두고 둘로 갈림. 「三山」은 중국 강소성 강녕현에 있는 산. [太平寰宇記] 「其山積石 濱於大江 有三峰 南北相接 吳時爲津濟所森森」. [晉書: 和嶠傳] 「嶠森森如千丈之松」. [孫綽: 遊天

台山賦] 「被毛褐之森森」. [李白: 登金陵鳳皇臺詩] 「鳳皇臺上鳳皇遊 鳳去臺空 江自流 吳宮花草埋幽徑 晉代衣冠成古丘 三山半落青天外 二水中分白鷺洲 總爲浮雲能蔽日 長安不見使人愁」. 蛟龍山=전북 남원군에 있는 산. [新增: 卷二十九 南原, 山川] 「在府西七里 北有密德福德兩峰 撐天窈山突岬」/ 蓬萊島=지리산(?)/ 廣寒樓=전북 남원읍에 있는 누정. 본래는 廣通樓였으나, 중건되면서 정인지에 의해 이름이 바뀌었음. [東國輿地勝覽: 南原] 「廣寒樓 黃守身記 府南二里許 地勢高平敞闊 有小樓 曰廣通 歲久頽廢 歲甲寅 府使閔君恭 改起新樓 丁巳 柳君之禮 繼加舟獲 甲子 河東鄭相國麟趾 易名以廣寒 噫湖南勝景 莫勝於吾鄉 而吾鄉勝賞 犬莫勝於斯樓 云云」.

5656 **註釋** 님=임금님. [訓蒙 中 1] [類合 下 16] 「님 주(主)」. [樂軌: 鄭瓜亭] 「내 님물 그리수와 우니다니」/ 안잤다가=앉았다가. 기본형은 「앉다」. [訓蒙 下 27] 「알줄좌(坐)」. [月千: 182] 「金床에 迦葉이 앉고」/ 쓰자=떠오르

5657

우연이 흥을 지여 세니강변으로 내려가니 出典 靈山歌·25
 슈류상 어약도 좃커이와 층암절벽 우의 낙낙장
 송이 더욱 좃타
 기 곳제 날 반길 니 업근마는 다만 두견니 썬을.

5658

우호로 聖主乙 이고 아라로 英俊乙 드리고 作家 柳希春
 清明호 時節에 도히 노는 오느리야 [字 仁仲, 號 眉巖]
 이몸이 退休田里호들 니즐 저기 이시라. 出典 眉巖日記

자. 기본형은 「쓰다·쁘다」가 같이 쓰였음. [三譯 七 19] 「쓰락 느즈락 호여도」. [杜初 七 2] 「느므락 브락 호느다」(沈浮)/ 반갑기도=반갑기도. 기본형은 「반갑다」임. [太平 一 58] 「심히 반갑다」. [月千: 128] 「아들님 반 「그지없다」임. [圓諺 序 46] 「천량 보비 그지업더니」. [月釋 一 46] 「나히 그지업시 오라더니」/ 어디서=어디에서. 「어디」. [蒙法: 13] 「어디를 因호야 업다 니르노」. [永嘉 上 4] 「어딜부터 일우리오(何由辦)/ 鳴鷄=닭의 울음소리. 「鳴鷄吠狗烟火里」/ 씨오거나=깨우느냐. 「씨오+거나」의 구조. 「씨오다」→5616 註釋. 「~거다」→5738 註釋.

5657 註釋 세니강변=시내강변. 냇가. 「시내·시내호」이 같이 쓰였음. [同文上 7] 「시내(溪)」. [類合 上 5] [石千: 23] 「시내계(溪)」. [杜初 七 8] 「프른 시내해 비록 비 해오나」/ 슈류상 어약도=水流上漁躍도. 흐르는 물에 뛰노는 고기도/ 좃커이와=좃거니와. 「똥다」→5639 註釋/ 우의=위에. 「우호」→5639

註釋/ 낙낙장송이=落落長松이. 가지가 척척 늘어진 큰 소나무. [陸機: 歎逝賦] 「親落落而日稀 友霏霏而愈索」. [左思: 詠史] 「落落窮巷士」. [孫綽: 遊天台山賦] 「蔭落落之長松」. [文選: 呂延濟注] 「落落松高貌」/ 기 곳제=그 곳에. 「곧」→5584 註釋/ 반길 니=반겨 줄 사람이. 「반갑다」→5656 註釋/ 두견니 썬을=두견만인 것을. 「杜鵑」. 蜀나라 望帝의 죽은 혼이 되었다는 새. [蜀王本紀] 「鼈靈死其屍逆江而流至蜀 王杜宇以爲相 宇自以德不及靈 傳位而去 其魄化爲鳥 因名此亦曰杜鵑 卽望帝也」. [華陽志] 「望帝禪位於開明 升西山隱焉 時適二月 子規鳥鳴 故蜀人悲鳥鳴也」. [寔字記] 「蜀之後主名杜宇 號望帝讓位 鼈靈 望帝自逃 後欲復位不得 死化爲鳥 每春月間 晝夜悲鳴 蜀人聞之曰 我望帝魂也」. [閩書] 「杜鵑 一名躑躅 一名山榴 一名映山紅 有深淺紅及紫者 白居易而詩 九江三月杜鵑來 一聲啼得一花開 蓋花開正囑之候」/ 「썬」→5695 註釋.

5658 註釋 우호로=위로. 「우호」

5659

遠山에 비 뿌린 후에 前江이 슬던 적의
 一片 苔磯에 난대를 받기 들고
 富春山 釣臺도 이러던 동 마던 동.
 * 題 目 : 開巖十二曲: 釣 磯

作家 金字宏
 [字 敬夫, 號 開巖]
出典 追慕錄

5660

源川이 渾渾하야 晝夜에 不舍하거니
 松竹이 蒼蒼하야 萬古에 長靑하거니
 우리도 乾坤中 一身이라 一身中에도 一乾坤이
 이실작시면 萬古長靑 못홀손가.
 * 題 目 : 慕賢曲(3-3)

作家 申甲俊
 [字 又仲, 號 晚覺齋]
出典 城西幽稿·10

→5639 註釋/ 聖主乙=임금님을. 「聖上」.
 [晉書] 「聖上神聽 元輔賢明」/ 아라로=
 아래로. 「아래」. [訓蒙 下 34] [類合 上
 2] 「아래하(下)」. [月千: 11] 「나모 아
 래 안즈샤」/ 드리고=데리고. 기본형은
 「드리다」임. [石千: 6] [類合 下 8] 「드
 릴술(率)」. [龍歌: 58] 「네 사를 드리샤
 (遂率四人)」/ 도하=갈. 좋게. 「둥다」
 → 註釋/ 노논=노는. 기본형은 「놀다」
 임. [類合 下 7] 「놀 일(逸)」. [五倫 一
 4] 「초나라히 놀시」/ 오느리야=오늘이
 야. 「오늘」. [月千: 115] 「오늘샤 드르
 산들 아바님이 니르시니이다」/ 退休田
 里=전원에 물러나가 쉬고 있음/ 니즐
 저기=잇을 때가. 기본형은 「났다」임.
 [石千: 8] [類合 下 13] 「니즐망(忘)」.
 [龍歌: 105] 「제 님금 아니 니저」. 「적」
 →5659 註釋.

5659 **註釋** 뿌린=내린. 기본형은 「뿌
 리다」임. [同文 上 29] 「細雨 뿌리다(撒
 一撒)」. [時調 2316] 「細雨 뿌리는 날에

紫芝 장옷」/ 슬던=(비가 와서) 물이
 붙어난. 기본형은 「솔지다·솔디다」가
 같이 쓰였음. [類合 下 2] [訓蒙 下 7]
 「슬질비(肥)」. [同文 下 38] 「말 솔디다
 (馬肥)」/ 적의=적에. 때에. [釋譜 六 7]
 「내 지비 이 싫 저기」. [月釋 十 28] 「본
 적 업다하고」 苔磯=이끼가 낀 여울돌/
 난대=낚시대. 「낚대·낙대」가 같이 쓰
 였음. [杜初 卅二 12] 「낚시대를 자벳느
 니(把釣竿)」. [倭語 下 15] 「낙대간(竿)」
 / 받기=비스듬이. 「빗기」. [杜初 十五
 52] 「빗기 자벳 더홀(橫笛)」. [金三 四
 38] 「빗기 드르샤」/ 富春山 釣臺=후한
 의 嚴子陵이 낚시하던 부춘산의 낚시터.
 [辭海] 「東漢 餘姚人 本性莊 避明帝諱
 改 一名遵 字子陵 少與光武同遊學 及光
 武即位 光變姓名 隱居不見 帝思其賢 物
 色得之 除諫議大夫不就 歸隱富春山 耕
 釣以終 後人名其釣處曰 嚴陵瀨」.

5660 **註釋** 源川=근원이 되는 물.
 물의 근원/ 渾渾하야=용솟음쳐 흘러서.

5661

월도천심처의 삼척금을 비겨 안고
 풍니슈면할 제 한 곡조를 타노란니
 건곤니 날다려 이으기를 나도 함귀.

出典 歌詞
 (羅孫文庫本) · 161

5662

월흐삼경 심야중의 게우 든 잠 씨여보니
 월식은 만정한디 저 달 저 창전 미화 날 소긴다
 아마도 저 구름 저 미화는 날 소긴다.

出典 歌詞
 (羅孫文庫本) · 126

「混混」.[孟子: 離婁 下] 「原泉混混不
 舍晝夜 盈科而後進 故乎四海 有本者如
 是」.[王逸: 九思] 「時混混兮澆饋」/ 晝夜
 에 不捨=밤낮으로 쉬지 않음. 晝夜不
 息.[事物紀原] 「歷年記曰 盤古開目爲晝
 閉目爲夜 通歷曰 地皇氏分不息」.[論
 語: 子罕篇] 「逝者若斯乎 不捨晝夜」/ 蒼
 蒼하야=늘 푸르러서. [曹植: 詩] 「大
 谷何寥廓 山樹諺鬱蒼」.[蘇軾: 詩] 「市
 橋人寂寂 古寺竹蒼蒼」/ 乾坤中=하늘과
 땅 가운데. [易經] 「皇帝堯舜 垂衣裳而
 天下治 蓋取諸乾坤」.[韓愈: 詩] 「浩蕩
 乾坤合」/ 이실작시면=있을 것이면. 기
 본형은 「있다」로 「잇+으+ㄹ작시면」의
 구조. 「있다」→ 註釋 [三譯 二 26] 「글
 업슬작시면 비록 영웅이라 날려도」.[新
 語 三 8] 「立酌을 호실작시면」/ 못홀손
 가=못하겠는가. 못할 것인가. 「못하+
 ㄹ+스+ㄹ가」의 구조. 기본형은 「못하
 다」임. [杜重 三 57] 「도히 주그물 득디
 못하고」. [杜重 下 56] 「보다 못홀소니」.
 「스」→ 5593 註釋. 「~ㄹ가」는 의문형
 종결어미임. [龍歌: 99] 「투구 세 사리
 네도 잇더신가」. [月印: 120] 「붓그료

미 엇데 업스신가」.

5661 註釋 월도천심처의=月到天心
 處의. 달이 하늘 가운데 이른 때에/ 삼
 척금=三尺玄琴. 거문고를 가리킴/ 비겨
 =빚겨. 비스듬이. 「빚기」→ 註釋/ 안고
 =앉고서. 「앉다」→ 5656 註釋/ 풍니슈
 면할 제=바람이 수면에 불 적에. 「제」
 → 5724 註釋/ 타노란니=타노라니. 기
 본형은 「쁘다」임. [訓蒙 中 17] [類合
 下 8] 「뿔 탄(彈)」. [杜初 卅四 38] 「거
 른고 뽕고 하늘과 싸홀 보더라」/ 乾坤
 니=천지가. 「乾坤」→ 5660 註釋/ 이으
 기을=일으기를. 기본형은 「니르다·닐
 다」가 같이 쓰였음. [訓蒙 上 10] 「니를
 위(謂)」. [月釋 一 17] 「부데 니르샤디」
 / 함귀=함께. 같이. 「흥귀·흥피」가 같
 이 쓰였음. [譯語 下 51] 「흥귀(打夥兒)」.
 [類合 下 30] 「흥피히(偕)」.

5662 註釋 월흐삼경=月下三更. 달
 없는 깊은 밤. 月沈三更 [漢官舊儀] 「五
 夜者 甲夜乙夜丙夜丁夜戊夜 衛士甲乙相
 傳盡五更」. [杜甫: 詩] 「五夜漏聲催曉
 箭」/ 심야중의=深夜中의. 깊은 밤에/
 게우=겨우. 간신히. 「게우·겨우·겨우·

5663

위강경 북망산아 네 일흠니 삼신산인야
영도선 고은 얼굴 북망산의 무쳐구나
석양의 짝 일은 갈마기난 오락 가락.

[出典] 歌詞
(羅孫文庫本) · 116

* 漢譯歌 :

5664

遊魚야 避티 말고 날을 조차 노라스라
釣餌를 貧티 말고 물근 물 먹어스라
내게도 낙대는 잇거니와 잡을 줄은 니제라.

[作家] 郭始徵
[字] 智叔 號 景寒亭
[出典] 景寒亭詩歌 · 20

* 題 目 : 景寒亭感興歌 二十四章(24-20); 知命遠危難

겨유」 등 다양하게 쓰였음. [續三 烈 17] 「계우 두서나론 하야. [新續 孝 三 76] 「나히 겨유 열 들헤./ 씨여보니=깨니. 「씨다」 →5594 註釋/ 월식은 만정한디 =月色은 滿廷한디. 달빛은 뜰에 가득 한데/ 창전 민화=窓前 梅花. 창 앞의 매화꽃은. 「梅花」 →5598 註釋/ 소긴다 =속인다. 「소기다」 →5646 註釋.

5663 [註釋] 북망산아=北邙山아. 북망산은 중국 하남성 洛陽의 북쪽에 있는 구릉을 통틀어 일컫는 것인데, 역대 제왕의 능이 많음.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곧, 공동묘지의 뜻으로 쓰임/ [辭源] 「山名 卽邙山 亦曰芒山 亦曰邙山 又曰北山 又曰北芒 在河南洛陽縣東北 接孟津偃師鞏三縣界 後漢城陽王祉葬北邙 其後王侯公卿多葬此. [水經注] 「邙阜連嶺修亘 苞總衆山 始自洛口 西踰平陰悉邙壟也./일흠니=이름이. 「일흠·일흠」이 같이 쓰였음. [杜初 上 50] 「일흠 배퍼 내여. [類合 上 7] 「일흠명(名)/ 삼신산인야=三神山이나. →5663 註釋/

얼굴=얼굴이. 「얼굴·얼굴」이 같이 쓰였음. [隣語 八 16] 「저놈은 얼굴은 저리 모지러 뵈도. [同文 上 18] 「얼굴(容顏)/ 무쳐구나=물쳐구나. 「물+히+엇+구나」의 구조임. 「히」는 피동선어 말어미. →5630 註釋/ 「문다」 →5646 註釋/ 짝=짝. 반려자. 「딱」. [類合 下 23] 「딱 배(配)」. [杜初 十五 3] 「瑤琴과 딱 하야./ 일흔=얕은. 기본형은 「얕다」임. [龍歌: 118] 「남궁 德 일흐시면. [月釋 八 8] 「누늘 뜨거나 굼거나 하야도 일틀 마라./ 갈마기난=갈매기는. 「굴머기·굴머이·갈머기」 등 다양하게 쓰였음. [杜初 十五 33] 「물에엿 굴머기는(沙鷗)」. [物語: 羽虫] 「굴머이(白鷗)」.

5664 [註釋] 遊魚야=(물에서)놀고 있는 고기야/ 避티=피하지. 기본형은 「피하다」임. [類合 下 16] 「피호피(避)」. [同文 上 30] 「피하다(回避)/ 조차=좃아서. 따라. 기본형은 「좃다」임. [龍歌: 112] 「行陣을 조차샤. [內初 三 7] 「뜨들 조씨 마라./ 노라스라=놀려무

5665

유정타 말을 미소 시속 인심 모르넨니
정 변혀여 원슈 되고 원슈 변혀여 정 되넨니
아마도 친불친은 일시 상스.

出典 歌詞
(羅孫文庫本) · 96

나. 놀자꾸나. 「놀+아+스라」의 구조임.
「~스라」는 청유형중결어미. [時調 1376, 鄭 澈] 「모을 사름돌아 올흔 일 흐자스라」. [松江 二 5] 「山中을 매양 보랴 東海로 가자스라」. 「놀다」→5658 註釋/釣餌=미끼. 낚시밥/ 물근=맑은. 기본형은 「뭍다」임. [石千: 3] 「물글담(淡)」. [訓蒙 下 1] 「물글청(淸)」/ 물=물. [解例: 用字] 「물 爲水」. [龍歌: 2] 「식미기픈 르(源遠之水)」/ 먹어스라=먹으려무나. 먹자꾸나. 기본형은 「먹다」임. [新語 三 10] 「이도 또 먹소오니」. [三綱 孝 30] 「외를 머저지라 흐거늘」/ 낙

대는=낙시대. 「낙대」→5704 註釋/ 잡을=잡을. 기본형은 「잡다」임. [石千: 18] 「자불집(執)」. [南明 上 27] 「나뭇가지 자바늘」/ 니제라=잇는구나. 잇도다. 「닛+에라」의 구조. 「~에라」는 감탄형중결어미. →5654 註釋. 「닛다」→5658 註釋.

5665 註釋 유정타=有精하다고/ 시속인심=時俗人心/ 모르넨니=모르나니. 「모르다」→5649 註釋/ 원슈 되고=怨讐가 되고/ 친불친은=親不親은. 친하고 친하지 않고는/ 상스=常事. 흔히 있는 일. 例常事.